

##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김상범\*\*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제216호 선거구 출마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을 상징하는 제216호 희천·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되었으며, 공개서한을 통해 전체 당과 인민에게 이 선거구 출마가 자신의 의중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출마를 공개 선언한 제216호 희천선거구를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로 정치상징화하였으며, 희천 지역 인민들은 이례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1968년 2월부터 지속되어 왔던 ‘216’의 정치상징화 움직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했음을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김정일, 후계자, 216, 권력 승계 과정,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 이 연구는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2021)의 후속 연구이다. 분량으로 인해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을 부득이하게 시기를 기준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 발간했음을 밝힌다. 논문을 위해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216호 선거구 출마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은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사실을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공개한 의미가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권력 승계 과정은 북한식 후계자 검증의 과정과 방식을 면밀히 분석·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과 방식은 북한의 대내외 인식, 후계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미래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과 향후 북한 체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인 역사의 현재화 작업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에 대한 연구는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의 북한정치사 복원과 재이해의 과정이기도 하다.

황장엽과 신경완 등으로 대표되는 고위 탈북인사들의 증언에 기초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 학계는 당시 북한의 문헌을 바탕으로 이를 면밀히 추적, 검증하려는 노력에 다수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 문헌에서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계가 의도치 않게 간과하거나 주목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김정일이 1974년 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후계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당과 전체 인민들에게 사실상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했음을 밝힌 시점과 이를

증명할 사실 및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권력 승계 과정 당시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정치활동은 철저히 비공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이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제216호 선거구에 출마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은 당시 회천 지역을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로 정치상장화하며 이례적으로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하였다. 권력 승계 과정이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김일성이 제216호 선거구 출마를 결정한 이유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이 인민의 대표를 선발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216호 선거구에 출마함으로써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일을 내정했음을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사실상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1972년 12월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와 비교를 위해 1967년 11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의 과정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연구 자료는 당시 발간되었던 『로동신문』이며,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및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3장에서는 1972년 12월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제216호 선거구 출마의 배경과 의미를, 4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329쪽.

## 2. 선행 연구 검토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는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살펴보고 북한 체제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김일성 사후인 1994년부터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의 확고한 리더십이 확인되었던 2000년대 중반까지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 검토는 이 시기 발간되었던 단행본 및 박사학위 논문을 주 분석 대상으로 제한한다.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 1968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에 김일성 가계의 본격적인 혁명화, 상징화 작업에 주목하고 이는 김일성 가계에 대한 공식적인 숭배의 시작이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할 준비가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비밀리에 개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둘째,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과 주석제 신설은 후계 구도 가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며, 특히 헌법은 수령제와 혁명 전통 계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령의 후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라고 주장하였다.<sup>3)</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은 익명의 북한 고위 탈북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김정일의 출생, 성장, 후계자 부상과정, 즉 김정일의 당 내 권력 승계 관련 논의의 시기와 내용, 당과 사회 분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

2)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80, 90~92쪽.

3) 위의 책, 106~107쪽.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71년까지 중소의 권력 동향을 자세히 분석한 당 내부 통보자료를 발간하며 후계자 문제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였다.<sup>4)</sup>

김광용은 수령제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해 수령제의 완성은 본질적으로 후계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후계문제란 오직 수령의 영도체계 내에서 후계자가 위업을 계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후계체제는 수령-후계자의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주석제 신설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였다.<sup>5)</sup>

김광인의 연구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만을 다룬 최초의 연구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광인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전 연구와는 달리 김일성이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일을 점지해 전체 인민들에게 공개한 시점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1998년 4월 15일 자 평양방송, 즉 김일성이 1972년 10월 비공개 해외 순방에서 한 발언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완성하자면 이론 수준도 영도 예술도 능하며 인민적 품모를 갖춘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며, 김정일이 실력도 좋고 품성도 좋으며,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을 근거로 이 시기 김정일이 후계자로 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 자료는 권력 승계 과정 당시 북한에서

---

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74쪽.

5)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42쪽.

6) “위대한 업적 만대에 빛나리,” 평양방송 정론, 1998년 4월 15일. 여기서는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30쪽에서 재인용.

발간된 자료가 아니며 김일성의 3년상이 지난 태양절에 공개되었다는 점과 당시 김일성 사망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최소한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의 권력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조작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창현은 전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신경완의 증언을 토대로 1967년 소위 갑산과 사건 및 1968년 김창봉, 허봉학으로 대변되는 군부 내 대남강경파들의 숙청이 본질적으로 후계구도 둘러싼 내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현은 김정일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시기별,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1972년 6월 8일 열린 정치위원회회의에서 최용건, 김일 등이 건강이 나쁜 당 조직부장 김영주를 대신해 김정일에게 전권을 부여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어린 나이를 이유로 김일성은 반대하였지만 이 시기 김정일과 견줄 후계자는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정영철도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1972년 6월 정치위원회 회의가 가지는 의미와 12월 당중재교부 사업에 주목하였다. 정영철은 1972년 6월 정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실상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동년 당중 재교부 사업은 후계체제에 대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는 1972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

---

7)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108쪽.

8)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137~139쪽.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1972년 6월 정치위원회 회의, 10월 김일성의 비공개 해외 순방 시 김정일에 대한 발언,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과 주식제 신설이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1972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되었으며, 김일성의 결심만이 남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첫째, 고위 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 당시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적, 검증,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1972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사실상의 후계자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면,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비공식적으로 혹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를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알렸던 역사적 사건은 없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1972년 12월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제216선거구 출마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이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1972년 12월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제216호 선거구 출마 선언의 배경과 의미

김일성은 1972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및 희천 시내 기관, 기업소 연합 종업원 대회에서 ‘제216호’ 선거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되었다.<sup>9)</sup> 1972년 11월 23일 제216호 희천선거구 내 경제생산단위들은 조선휘명에 대한 불멸의 업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하며 김일성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216호 회천선거구의 후보자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이후 그들은 김일성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결정을 수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다.<sup>10)</sup>

김일성은 전체 인민들에게 대의원 후보자는 오직 하나의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5장 제36조를 근거로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이 제216호 회천선거구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sup>11)</sup> 그는 이 공개서한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이 제216호 회천선거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되자 북한은 회천 지역을 제216호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듯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로 상징화하기 시작했다.<sup>12)</sup> 『로동신문』도 1967년 11월 선거 때와는 확연히 다른 보도 형태를 보였다. 1967년 10월 18일 김일성은 제403호 송림선거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

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16호 회천선거구 천리마 회천공작기계공장 및 회천 시내 기관, 기업소 연합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10) 위의 신문, 1972년 11월 24일.

11) 김일성은 1967년 11월 선거 당시에도 10월 28일 자신이 송림선거구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공개서한을 밝힌 바 있다. “김일성께서 각 선거구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1967년 10월 29일.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만세! <정론>인민은 영원히 수령님과 함께,”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자로 추대되었다. 당시 『로동신문』은 이와 관련된 기사 제목에 선거구명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후보자 추대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단 3개의 기사 내용에 제403호라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때는 확연히 달랐다. 북한은 김일성이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된 1972년 11월 23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 12일까지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 추대일,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확대회의, 『조선신보』의 사설<sup>13)</sup>에 총 11건의 관련 기사에 제216호 선거구명을 포함시켰다.<sup>14)</sup> 이는

---

1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나아가리라: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216호 회천선거구의 후보자로 추대되신 것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여 《조선신보》가 사실을 실었다,” 『로동신문』, 1972년 12월 8일.

1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사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표시,”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공개서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각 선거구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1972년 12월 2일;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회천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수령님을 추대한 것을 수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천리마 회천공작기계공장 및 회천 시내 기관, 기업소 연합종업원대회 참가자들이 편지를 드리었다,” 『로동신문』, 1972년 12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제216호 회천선거구 선거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1972년 12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선거위원회 보도 발표,” 『로동신문』, 1972년 12월 3일; “수령님의 크나큰 믿으심과 배려에 끝까지 충성으로 보답할 것이다,” 『로동신문』, 1972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위원회들에서 대의원들 후보자등록을 끝냈다: 중앙선거위원회 보도,” 『로동신문』, 1972년 12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나아가리라,” 『로동신문』, 1972년 12월 8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조총련을 포함한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216’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왜 ‘제216호’ 선거구 후보자로 추대되었을까? ‘1972년’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북한은 이후 희천을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로 상징화하였으며 『로동신문』상에서 ‘216’을 강조했던 것일까? 이 선거는 당시 후계자 지명과정이라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은 김일성이 1968년 2월부터 지속되어 왔던 216의 정치상징화로 대변되는 김정일로의 후계 승계 작업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216호 선거구 출마를 통해 김정일을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했음을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 1) 216호 선거구 출마의 배경 및 의미

상술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활용, 그리고 제216호 선거구의 출마가 가지는 의미이다. 후자는 김일성이 희천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그 선거구 번

---

의 대의원선거를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로동신문』, 1972년 12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인 경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높이 애국적 열의와 빛나는 사업성으로 맞이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에서 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의 연설(요지),” 『로동신문』, 1972년 12월 9일.

호가 우연히 제216호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후계 승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일은 1968년 2월 16일 자신의 생일에 김일성 가계의 본격적인 혁명화, 상징화 작업과 동시에 김일성을 북한 역사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하며,<sup>15)</sup> 자신을 자연스럽게 태양의 아들, 미래의 태양으로 규정해 그 누구도 북한의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sup>16)</sup> 이것은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을 상징하는 216에 대한 최초의 정치상징화 작업이었으며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치적 목인하에 『로동신문』이라는 공식 매스컴을 통해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공연한 비밀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sup>17)</sup>

또한 1970년 4월 5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来)가 방북 시 이용했던 ‘IL-216’ 비행기에 대한 정치상징화 작업을 통해 북한 사회가 후계자로서 자신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과시하였다.<sup>18)</sup> 이는 216이라는 숫자가 김정일에 의해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신성시해야 해야 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자신을 미래의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된 선전을 이어 갔음을 의미했다.<sup>19)</sup>

1969년 9월 3일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 사망과 그의 유훈, 즉

---

15)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 천연색 기록영화 《만경대》,” 『로동신문』, 1968년 2월 16일.

16)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2021), 108쪽.

17)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80쪽.

18)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136~141쪽.

19) 한승대, “북한의 정치적 의례에 관한 연구: 지도자 기념일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9쪽.

청년동맹을 통한 혁명 미래세대 교육·양성의 중요성 강조에 영향을 받은 북한은 196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후계세대 교육·양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sup>20)</sup> 이후 김정일은 파격적인 승진을 통해 1970년 초 북한을 움직이는 두 개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전반적인 당무를 장악하며<sup>21)</sup>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이와 같은 후계자 문제는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 준비과정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한 수순이 밟아졌다. 이 당 대회에서는 최고지도부에 혁명 2세대들인 오극렬(전 인민군 총참모장), 강성산(전 총리), 허담(전 외무상), 황장엽(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영남(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형묵(전 총리)가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제5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을 보면 117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86명(73.5%), 후보위원 55명 가운데 48명(87.2%)가 신인이었으며, 이는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의미했다.<sup>22)</sup> 이로써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빨치산 원로들은 당 대회라는 북한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김정일로의 후계자 지명을 위한 본격화 단계에 돌입했다.<sup>23)</sup>

후계문제는 1971년 4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직후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되었다. 지병

---

20)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128~132쪽.

21)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120쪽.

22)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司),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백계문·이용빈 옮김(파주: 한울, 2012), 120~121쪽.

23)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94쪽.

으로 인해 조직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김정일을 지지했던 김영주가 김정일을 당 조직·사상비서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항일 빨치산 그룹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 사안은 결국 김일성의 만류에 의해 보류되었다.<sup>24)</sup>

그러나 두 달 뒤인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회주의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혁명의 후계자 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 운동에서 여실히 증명된 체제의 사활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후계자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1971년 11월 15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재논의되었는데,<sup>25)</sup> 이러한 논의가 지속된 것은 김일성 스스로가 자신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세력들의 혁명위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1년 12월에는 11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를 총결하는 정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후계자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나 또 다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sup>26)</sup>

김일성의 환갑을 맞이하던 1972년 4월의 첫날 최용건은 자신의 명

2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82-83쪽.

25)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105~106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71년 11월 16일. 이날 보도에서는 김일성이 첫 번째 의정문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보고하였다. 『로동신문』에서는 김일성이 당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심오한 과학 이론적인 해명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1971년 9월 8일 마오쩌둥(毛澤東)의 남방 순시를 계기로 벌어졌던 린바오(林彪)의 마오쩌둥 암살계획의 실패와 이후 린바오의 비행기 추락사 등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이 후계자와 관련된 사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전원회의 의정 중 조직 문제에 관한 것은 없었다.

26) 김광용, “북한 ‘수령계’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103쪽.

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다’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다. 최용건은 당시를 ‘혁명 도상에 있는 혁명적 폭풍의 시대’로 규정하고 젊은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 것과 이를 거부하는 것을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 수 정주의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sup>27)</sup> 이것은 첫째, 후계자 문제의 중요성 강조, 둘째, 혁명전통 계승에서 혁혁한 성과를 통해 후계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지지, 셋째, 이를 반대하는 것은 수정주의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어 김일성은 4월 16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개최된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와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4월 20일 전국대학생예술축전 종합공연에 참석<sup>28)</sup>하는 등 그의 환갑은 후계 문제를 상징하는 행사들로 채워졌다.

김정일은 197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을 맞이하여 항일노투사들의 요청을 명분으로 김일성에게 4월 22일<sup>29)</sup> 만경대와 칠

---

27) 최용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1일.

28)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경애하는수령 김일성원수님을모시고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캄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참석,” 『로동신문』, 1972년 4월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을 보시었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전국대학생 예술축전종합공연을 보시었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21일.

29)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1989), 69쪽. 4월 22일 김일성은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위원장 면담하였으며, 자신의 환갑을 경축하는 전국체육축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행사에는 박성철, 양형섭, 윤기복, 최영림 등이 김일성을 대신해 참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위원장을 만나시었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23

콜사적지 방문을 제안하였으며, 김일성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sup>30)</sup> 김일성은 김일, 최현 등 혁명 1세대 간부들과 당시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었던 김정일을 포함해 전병호, 김기남, 김국태, 최태복 등 다수의 혁명 2세대와 함께 만경대를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먼저 운명을 달리한 항일무장 동료들을 회상하며 이들에게 혁명과 혁명의 계승자들을 옹계 키우자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어 김일성은 그의 어머니인 강반석이 태어나 결혼 전까지 생활했던 칠골사적지를 방문하여 김정일을 비롯한 혁명 2세대들을 일컬어 40년간의 혁명사업을 계승해 나갈 동무들이며, 우리의 혈통을 이어 나갈 교대자들이라고 강조하였다.<sup>31)</sup> 이는 김정일이 후계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만경대와 칠골사적지로 대변되는 혁명전통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며, 김일성은 후계자로서 김정일에 대해 혁명전통과 항일무장투쟁 동료들의 지지 의사를 활용해 정치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북한 내에서 혁명 1세대들을 중심으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한 건의가 이어지고 있었던 점을 통해 봤을 때 김일성의 발언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1972년 4월 24일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40주년 행사

---

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쌓아올린 주체체육의 빛나는 성과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돛을 경축하는 전국체육축전이 열렸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23일.

30)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혁명위업계 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제20권, 157쪽. 『로동신문』상 1972년 4월 내 김일성이 혁명 1, 2세대들과 함께 만경대와 칠골사적지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다.

31) 위의 책, 157~158쪽.

는 매우 성대히 치러졌으며, 한익수 군 총정치국장은 군내에서 유일 사상체계 확립과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한 혁명전통 계승은 김정일의 후계지명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혁명전통 계승은 '수령제'를 형성하고 후계를 정통화하는 양 바퀴를 의미했다.<sup>32)</sup>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는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72년 6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최용건, 김일 등 당시 김일성의 최측근 인사들이 건강이 나쁜 김영주 조직부장 대신 김정일에게 당 조직·사상 분야 전권을 부여할 것을 재차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이 요구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나이가 이제 30살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sup>33)</sup> 후계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김정일에 견줄 대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sup>34)</sup> 이것은 김일성이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일을 수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음을 의미했다.

김일성이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문제를 신중히 접근했던 이유는 비록 유일지배체제 확립으로 세습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하는 일부 소련 유학파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sup>35)</sup>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 및 대북한 시각, 미중 데탕트(detente)와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대표되는 남북관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아들로의 권력 세습 문제를 쉽게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

32) 스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131쪽.

33)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105~106쪽.

34)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103쪽.

3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6쪽.

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당시 국내외 환경과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봤을 때 북한 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후계 문제를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내적 강박관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72년 9월, 11월에 제5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 한다는 명분하에 당 조직들로부터 선발된 핵심 당원들과 대학생 등 청년 인텔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도 소조를 경공업 공장과 철도운수 부문 등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본격적인 체제 개편작업도 물밑에서 병행되었다.<sup>36)</sup>

북한은 1972년 10월 23~26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초안과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바꾸어주는 사업 진행(당중 재교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sup>37)</sup> 이 회의에서는 1956~57년에 이은 두 번째의 당중 재교부사업에 대해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해당 결정을 채택하였다.<sup>38)</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중 재교부 사업을 제의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었다는 사실이다.<sup>39)</sup> 당중 재교부 사업은 조직의 강화, 재개편,

---

36) 탁용달, “대중운동을 통한 김정일 리더십 강화,” 『북한학연구』, 제6권 2호 (2010), 205~206쪽.

3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72년 10월 24일.

38) 위의 신문.

3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91쪽.

당내 정치적 불순분자들의 제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의 충성심을 김정일에 의해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김정일에 대한 사실상 충성맹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도 김정일 주도의 당중 재교부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당을 통해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와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적극 나섰음을 의미했다. 김일성은 당중 재교부 사업에 대해 단순한 정치 캠페인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상투쟁과 교양사업을 통해 당원들이 새로운 당원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sup>40)</sup> 그러나 김일성의 의도는 “당중 재교부 사업과 관련해 노당원, 노간부들에게 당원증을 교환해주되 당 회의나 당 학습회에는 참가하지 않도록 해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주요 일군들을 청년들로 구성하되, 1973년 5월 1일까지 모든 사로청 일군들을 청년일색으로 꾸리라”는 특별 지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세대교체’였다.<sup>41)</sup> 당중 재교부 사업의 결과 1970년에 160만 명이었던 당원 수가 1972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당원들이 대거 충원되었으며,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구축에 든든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sup>42)</sup>

김일성이 후계자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최초로 제시하고 당중

---

40)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2년 10월 23~26일),” 『김일성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501~506쪽.

41) 위의 책.

42) 송정호, “김정일 권력승계 공식화 과정 연구: 1964~1986년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71~72쪽.

재교부 사업을 통해 김정일을 후계자로 임명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북한은 1972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동년 12월 12일에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다.<sup>43)</sup> 사회주의에서 선거는 동원, 정치교육과 사회화, 통합, 정당성, 대인민정책의 영향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한다.<sup>44)</sup> 특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정치적, 사회적 의례의 통합, 정치 제도·공간에서 최고지도자와 정부, 인민들 간에 정치적, 상징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sup>45)</sup>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추대된 다양한 직군의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존경을 표명하며 최고지도자와 정권은 인민들의 충성심과 감정을 읽어내는 기회로 활용한다.<sup>46)</sup> 북한에서도 이러한 의미는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정권의 안정화와 모든 계층의 일심 단결과 인민들의 최고지도자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sup>47)</sup>

북한은 11월 11일 자 『로동신문』 기사 2면을 통해 제5차 당 대회에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2년 11월 10일.

44) Alex Pravda, “Elections in Communist Party,” Stephen White and Daniel Nelson(eds.), *Communist Politic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pp.45~53.

45) Serhy Yekelchuk, *Stalin's Citizens: Everyday Politics in the Wake of Total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180.

46) *Ibid*, pp.194~195, 216~217.

47) 전현준,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통일연구원, 2009.3.), 11~12쪽.

서 제시된 3대 기술혁명과 그 중심고리인 기계공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당시 북한 최고의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은 천리마회천 공작기계공장의 기계생산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sup>48)</sup> 1967년 11월 선거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본질상으로 인민주권기관 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같았으나, 후계자 구축과정에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강조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1972년 11월 18일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조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정령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967년 11월 선거 당시 총 457개 선거구를 541개로 확대 개편하는 것과 전체 541개 선거구 번호와 명을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하였다.<sup>49)</sup> 북한은 11월 19일 자 『로동신문』 2면에 제216호 회천선거구를 공개하였으며, 같은 면에 1972년 4월 22일 김정일의 제안에 의해 김일성이 방문했던 칠골사적지 방문기를 게재하였다. 북한은 칠골사적관과 김일성의 외갓집을 돌아본 『로동신문』 기자의 소감을 전하며 김일성의 혁명가정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제216호 회천선거구 공개와 칠골사적지 관련 기사를 통해 김일성 혁명가정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한 것은 김정일의 생일

---

48)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작기계생산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킨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에서,” 『로동신문』, 1972년 11월 11일. 이것은 1967년 11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선거구 번호와 명을 공개하고 황해제철소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 후, 김일성이 황해제철소가 위치한 송림선거구에 대의원으로 추대된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직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2년 11월 19일.

을 상징하는 제216호를 통해 자신이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유일한 인물임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확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빨치산 1세대 그룹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은 제216호 선거구 ‘번호와 명’ 확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추대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 조직과 사상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과도 논의한 결과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72년 12월 선거 이전까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번호와 명이 가지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 예를 들어, 1967년 11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216호 선거구는 량강도 운흥군 운흥읍 운흥선거구였으며,<sup>50)</sup>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415호 선거구는 강원도 김화군 황도리 원동선거구였다. 이 선거구들은 북한 체제에서 정치, 역사적으로 의미가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해 선거 당일인 12월 12일부터 이후 『로동신문』에는 선거과정보다 오히려 권력승계를 의미하는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하는 기사로 채워졌다.<sup>51)</sup>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

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직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7년 10월 4일. 참고로 정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던 선거구는 제219호 선거구(량강도 보천군 보천읍 보천선거구)였으며, 회천 지역은 제180호 선거구였다.

5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하자: 〈정론〉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고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함께!”

대의원 선거 결과를 호외로 발행하고 비행기를 동원해 평양에 대규모로 배포하였으며, 기차와 자동차를 통해 전국 각지에 배포되었다.<sup>52)</sup> 상술한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이 선거가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11월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216호 선거구 후보자로 추대되고, 공개서한을 통해 동의를 표시한 것은 그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낙점했음을 선거라는 국가 제도를 활용해 당과 인민들 모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당시 김일성을 자신의 선거구 후보자로 추대했던 회천 지역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전체 노동계급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였다.<sup>53)</sup>

김일성은 인민들의 대표를 선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는 제도를 활용해 인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김정일을 후계자로 ‘사실상 공식화’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과 정치적 암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장엽의 말처럼 김일성은 1968년 2월 16일 김정일이 권력 확보 의지를 가지고 김일성 가계의 혁명화, 상징화 및 김일성을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하며 후계자로서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논의에 반대하지 않았다.<sup>54)</sup> 당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감안했을 때 김일성에게

---

『로동신문』, 1972년 12월 12일; “이번 선거의 크나큰 승리에 대한 감격을 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다: 회천지구 근로자들,” 『로동신문』, 1972년 12월 14일.

52)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보도를 신문호외로 발간,” 『로동신문』, 1972년 12월 14일.

53) “〈사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표시,”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후계자로서 김정일에 대한 의중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sup>55)</sup> 종합해 보면, 김일성은 어린 나이로 인해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논의에 대해 정치적 목인 및 기회부여를 통해 신중히 접근했으며, 김정일은 이를 활용해 당의 조직과 선전선동 분야를 장악하며 실질적인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해 갔다.

12월 12일 선거 후 열린 1972년 12월 29일 당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최용건, 김일, 최현 등의 요구에 의해 김정일에게 우선 조직·선전부문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sup>56)</sup> 김정일에게 당 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맡긴다는 것은 김일성의 후견하에 이 사업에 대한 장악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당내 권력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김일일로의 권력 승계를 법·제도적 절차를 밟아 공식화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후계자 확정문제는 시간문제였으면 김일성에 의한 공식화만 남은 상황이었다.

## 2)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가 가지는 의미

희천은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과정,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대변되는 반종파투쟁, 경제·국방병진 노선 등 정치·경제 면에서 '김일성 권력 정당성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제216호 희천선거구<sup>57)</sup>는 기존 김일성

---

5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171~172쪽.

55) 위의 책, 172쪽.

56)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108~109쪽.

57) 1967년 11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당시 희천 지역 대의원 후보자는 남선

이 대의원 후보로 추대되었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경제·군사·남북관계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희천은 북한의 기존 중화학공업기지와 같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남겨진 군사공업 기지가 아니라<sup>58)</sup> 김일성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전쟁 수행과 전후 복구, 경제발전 등 국가의 미래 발전상까지 고려해 정치적 애착을 가지고 건설한 북한 자체의 첫 기계공업 단지였다. 희천공장기계공장은 정전 후 소위 연안과, 소련과들로 대표되는 반김일성 세력들이 김일성의 중공업우선정책에 대해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을 때, 김일성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지도했던 ‘김일성의 정치·경제적 보루’였다. 그 결과 1958년 북한에서 최초로 ‘희천’의 이름을 붙인 자동차와 트랙터, 굴착기, 불도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958년 김일성이 지방공업 강화를 지시했을 당시에 지방에 건설된 공장들에 많은 공작기계들을 생산해 보내주었다. 이로 인해 희천공장기계공장은 ‘어머니공장’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기도 하였다.<sup>59)</sup> 북한은 희천공장기계공장의 성과를 통해 1959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서 한해 계획 외 1만 3천 대의 공작기계를 만들어 내며 북한의 자립적민족경제노선의 기초를 다

---

육이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희천공장기계공장 노동자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위원회들에서 대의원후보자등록을 끝냈다,” 『로동신문』, 1967년 11월 1일.

58) 일본이 남긴 북한 내 공장들에 대해서는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 차문석·박정진 옮김(서울: 도서출판 미지북스, 2009), 378~379쪽을 참고.

59) “줄기차게 일어나는 기술혁신운동: 중국 <인민일보>에 실린 신화기자의 조선방문기,” 『로동신문』, 1971년 8월 23일.

질 수 있었다.<sup>60)</sup> 1970년 9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공장의 일군, 공장당 위원회 일군들,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동원되어 1,00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sup>61)</sup>

김일성은 4대군사노선 제시 및 중소분쟁 격화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럽던 1963년 5월 7일 희천공작기계공장 지도일군들을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특수공작기계와 자동기계 생산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희천지구를 자동기계생산기지로 전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희천의 노동자들은 자동화실천직장에 ‘5.7’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대적인 자동공작기계 생산에 돌입하였다.<sup>62)</sup>

김일성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과 3대 기술혁명을 제시하며 질 좋은 대형생산기계를 대량 생산해 내는 것<sup>63)</sup>이 인간의 노동해방과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미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것은 당시 북한경제의 성과는 희천공작기계공장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희천공작기계공장은 1970년대 당시 북한의 가장 큰 현대적인 기계공업기지의 하나였으며, 생산된 기계들은 내부의 수요뿐만 아

---

60) “〈정론〉 인민은 영원히 수령님과 함께,”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61) 김일성,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자(희천공작기계공장 지도일군 및 모범노동자들과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9일),” 『김일성 저작집(1971.1.~1971.12.)』,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03쪽.

62) “희천 땅에 위대한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시여: 앞날의 혁명적 비약을 위하여 심어주신 위대한 불씨,” 『로동신문』, 1971년 3월 20일.

63)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결정서(1970년 11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0년 11월 13일.

나라 해외 시장에 수출되며 북한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당시 기계공업 생산기지 중 가장 많은 19회의 현지지도 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150여 차례의 교시를 전달한 바 있었다.<sup>64)</sup> 이렇게 희천공작기계공장은 기계공업의 선발대였으며, 김일성은 희 천 지역의 살림집, 합숙,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부식공급 사업 등 도시 건설과 경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sup>65)</sup> 김일성은 평양 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던 곳 중의 하나였으며, 그로 인해 희천은 급속히 국가 중요산업시설로 전변되었다. 이에 인민들은 전변 된 희천을 ‘제2의 평양’으로 인식했다.<sup>66)</sup>

김일성은 1971년 2월 20~22일까지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 롯한 희천지구 공장, 기업소를 현지지도 하였다.<sup>67)</sup> 김일성은 현지지 도에서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공업 발전의 기본토대로 되는 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해내는 것이 사 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담보”라고 강조하였다. 4월 21일 희천공작기계공장 노동자들은 종업원 집회를 갖고 현지교시

---

6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 『로동신문』, 1972년 11월 24일.

6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공작기계공장과 희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 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당장건 스물여섯통에 즈음하여 새 기술혁신 봉 화를 추켜들고 9월에 1천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였으며 10월 10일 전으로 올 해 계획을 끝낸 희천의 붉은 기계전사들을 몹소 찾으시고 그들의 자랑찬 성과 를 열렬히 축하하시였으며 새로운 승리로 고무하시였다,” 『로동신문』, 1971 년 10월 10일.

6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 『로동신 문』, 1972년 11월 24일.

6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1971년 3월 1일.

를 관찰하기 위해 1971년 8월 15일까지 4,500대, 1972년 4월 15일까지 공작기계 10,000대 생산을 목표로 한 자체 결의문과 김일성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sup>68)</sup>

1972년 4월 15일까지 10,000대의 공작기계를 제작한다는 것은 북한이 5차 당 대회에서 제기한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의 말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약 13개월의 시간 동안 공작기계를 10,000대를 생산한다는 것은 올해 계획과는 별도로 노동자 1인당 할당량의 5-6배를 해 내야 하는 매우 힘든 노동과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sup>69)</sup> 흥미롭게도 이 결의문과 맹세문에는 자신들이 김일성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는 친위대, 결사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희천공작기계공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소개하며, 전국 공장, 기업소,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sup>70)</sup> 이것은 김일성의 현지교시를 관찰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질 좋은 공작기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5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경제개발 6개년 계획과 3대 기술혁명의 완수가 계속 혁명과 혁명 미래세대 구축, 통일 완성의 토대 마련 및 국방건설, 즉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므로 결사 관찰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의도를 반영

---

68) “수령의 교시 높이받들고 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들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 명년 4월 15일까지 공작기계를 10,000대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전진·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킨다·새로운 결의 드높이 일대 비약으로!” 『로동신문』, 1971년 3월 1일.

69) 위의 신문.

70) “전국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1971년 3월 4일.

한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김일성이 현지도 당시 “공작기계생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과 공작기계 1만 대 생산을 “6개년 계획의 심장부”<sup>71)</sup>로 지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당 창건 26주년 하루 전인 1971년 10월 9일 희천공작기계 공장을 다시 현지도하고 9월에만 1천 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해 당 창건기념일 전으로 당해 계획을 완수한 희천공작기계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sup>72)</sup> 10월 15일 이 공장은 경제개발 7개년계획 당시 목표 생산액을 127% 초과 달성하였으며, 공작기계생산에서 106% 목표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로 부여된 임무를 완성했다.<sup>73)</sup>

희천공작기계공장 노동자들은 전국의 천리마 기수들과 공장, 기업소, 자재상사들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바탕으로 1972년 4월 9일 10,125대의 공작기계를 생산, 그들이 제시한 목표를 완수하고 김일성에게 보고하였다.<sup>74)</sup> 김일성은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열차편으로 당시 국빈 방문 중이었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캄보디아 국왕과 함께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깊은 감사를 표명

---

7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개년 계획의 2년분 과제를 끝낸것과 관련하여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문을 보내 시였다,” 『로동신문』, 1972년 3월 3일.

7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공작기계공장과 희천지구를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1971년 10월 10일.

73) “줄기차게 일어나는 기술혁신운동,” 『로동신문』, 1971년 8월 23일.

74) “수령님 탄생 예순돛을 맞으며 영웅적 희천의 로동계급이 드리는 충성의 선물 1만 125대의 공작기계를 생산,” 『로동신문』, 1972년 4월 10일; “6개년 계획의 2년 분 과제를 끝냈다! 수령님께서 지퍼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나아가는 희천의 영웅적 기계전사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 『로동신문』, 1972년 3월 2일.

하였다.<sup>75)</sup> 이는 시하누크에게 북한의 경제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예정된 일정일 수 있었겠지만, 국민을 모시는 공식 일정 속에서도 당일 일정으로 희천 지역을 방문한 것은 김일성이 가지고 있었던 희천공작기계공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목표 달성이 가지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였을지를 짐작케 한다. 희천은 3대혁명과 경제·국방병진 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체제의 내외부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즉 ‘조선의 미래’였다. 이는 김일성은 최고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216호 희천선거구에 출마한 이유와 수령의 대를 이어 그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고 북한의 장래 운명에 대해 책임지는 인물로 김정일을 선택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sup>76)</sup>

김일성은 다음 날인 12일 희천공작기계공장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역대 최대의 포상을 하였다. 국기훈장 제1급 15명, 로력훈장 7명, 국기훈장 제2급 89명, 국기훈장 제3급 673명, 군공메달 8명, 5,352명에게 공로메달이 수여되었으며, 6명의 기술자들에게는 ‘보충인 김일성’ 명의의 입당이 허락되는 등 총 6,150명에게 훈·포상이 이루어졌다.<sup>77)</sup>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도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과

75) “캄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희천지구를 방문: 희천시 수만 근로자들 15리연도에서 캄보자국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 “캄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희천지구공장들을 참관하였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12일.

76) 김유민, 『후계자론』(신문화사, 출판 연도 불명), 62쪽.

7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작기계 1만대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한 것과 관련하여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었다: 공화국 훈장 및 메달 수여식도 있었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13일. 이 시기 역시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도 공작기계 1만대 생산 목표를 완수하였다. 김일이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축하문을 전달하고 김일성은 총 5,792명에게 훈장과 포상을 하였다. 이것은 경제개발 6개년

같이 공작기계 1만 대 생산 목표를 완수하였으며, 같은 날 김일성으로부터 훈·포상을 받았으나, 『로동신문』에는 하루 차이로 천리마회천 공작기계공장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에 대한 훈·포상 관련 기사를 먼저 게재하였다.<sup>78)</sup> 이는 희천공작기계공장이 북한 체제에서 가지는 의미와 김일성의 정치적 애착의 정도를 보여 준다.

희천공작기계공장은 이렇게 김일성이 환갑 전에 현지도도 한 마지막 경제생산단위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정치적 관심과 배려를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동년 10월 10일 이전으로 6개년 계획의 3년 분량의 과제를 끝내고 앞으로 1년 동안에 또다시 1만 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 것을 다짐하게 만들었다.<sup>79)</sup> 이로써 북한은 희천공작기계공장의 공작기계 1만 대 생산 목표 달성으로 인해 경제개발 6개년 계획과 3대 기술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정치,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희천 지역은 ‘김일성의 나라 만들기’ 역사와 밀접히 연관된 곳으로 후계자 확립과정에서 대의원 선거에서 ‘조선의 미래’이자 ‘제2의 평양’으로 상징되는 김정일을 의미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희천 지역은 김일성과 북한에게 정치적 의미에서 혁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시대의

---

계획과 3대 기술혁명 완수를 위해 기계공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78)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작기계 1만대고지를 점령한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14일.

79)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들(요지): 1만대의 공작기계고지를 점령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앞으로 1년 동안에 또다시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겠다-허정운동지,” 『로동신문』, 1972년 4월 30일.

아들'이었고,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를 의미하게 되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연구되었던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당시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추적, 검토하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일성의 제216호 선거구 출마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일성은 김정일을 상징하는 제216호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되었으며, 공개서한을 통해 전체 당과 인민에게 선거구 출마가 자신의 정치적 의중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출마를 공개 선언한 제216호 회천선거구를 '제2의 평양'이자, '조선의 미래'로 상징화하였으며, 회천 지역 인민들은 이례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행위에 주목하며 김일성이 제216호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된 것은 1968년 2월부터 지속되어 왔던 216의 정치상징화 움직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사실을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김정일은 이 선거 전후 김일성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중 재교부 사업을 주관하며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했으며, 197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sup>80)</sup>에서

---

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김정일은 2월 25일에 실시된 당 선전선동 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에서 ‘당 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기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자신이 김일성의 주체사상 및 혁명이론을 심화·발전시켜 나갈 ‘유일한 계승자’임을 선언하였다.<sup>81)</sup> 이를 통해 1972년 12월 김일성의 제216호 선거구 출마는 사회주의 헌법과 주석제라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에 근거해 수령의 영도체계 내에서 수령-후계자의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972년 12월 김일성의 제216호 선거구 출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북한 문헌은 『로동신문』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혹자는 본 연구에 대해 결과론적 해석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8년 2월부터 본격화된 216의 정치상징화 작업의 지속은 1972년 당시 데탕트와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국제적 환경 변화, 소련, 베트남, 중국의 후계자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북한의 교훈 및 대응, 최고지도자의 환갑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1972년 하반기에 사실상 김일성이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상술하였듯이 당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발간된 자료를 통해서 명확한

---

1974년 2월 14일.

81)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134쪽.

역사적 자료에 근거해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의 가계 혁명화 및 김일성을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한 것은 김정일이 당시 혁명전통 교양과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결과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거나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수많은 연구 중 특정 시기와 특정 연구물로만 선행연구를 제한해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몇몇 박사학위 논문 및 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 학술 논문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당시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을 토대로 김일성의 제216호 선거구 출마의 의미를 집중 분석해 이것이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했음을 정치적 암시를 통해 전체 당과 인민들에게 알렸음을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보충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판단된다.

김정일을 상징하는 216에 대한 정치상징화 작업은 1974년 내부적으로 후계자의 지위를 획득한 후 공개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정일은 기자 출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글을 써 주는 집단인 '216호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sup>82)</sup> 1982년 자신의 40세 생일부터는 2월 16일을 국가적 휴일로 지정하였다.<sup>83)</sup> 김정일은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666선거구와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

8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76쪽. 황장엽은 216호실이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83) 히라이 히사시,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135쪽.

선거에서 제649선거구에 각각 출마하였다. 북한은 제666선거구에 대해 ‘6’ 자 셋을 곱하면 216(6×6×6)이며,<sup>84)</sup> 제649선거구에 대해서도 세 자리를 모두 곱하면 216(6×4×9), 반대로 9에 4를 곱하고 6을 더하면 42가 되므로 이것은 김정일의 생일인 1942년 2월 16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sup>85)</sup> 북한은 김정일을 상징하는 숫자에 대한 정치화 작업을 통해 김정일을 더욱 신성시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지속해 갔다.<sup>86)</sup> 이것은 모두 자신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얻어진 학습 효과를 의미했다.

한 연구자의 말처럼 북한 관련 연구는 ‘다시 연구’되고 ‘다시 써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북한 역사 관련 연구는 더더욱 그러하다.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한 시점과 내용과 관련된 북한 자료에 대한 입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정일의 생일을 의미하는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 과정이 당시 선전선동 분야를 사실상 장악했던 김정일이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지만 그가 직접 이 작업을 주도, 지시했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향후 유의미한 자료 발굴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접수: 7월 2일 / 수정: 7월 29일 / 채택: 7월 30일

84) “우리 장군님은 전설적 위인: 666,” 『로동신문』, 1999년 7월 2일.

85) “제649호 선거구,” 『민주조선』, 2003년 7월 2일.

86) 한승대, “북한의 정치적 의례에 관한 연구: 지도자 기념일을 중심으로,” 29쪽.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2) 논문

김일성,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자(최천공작기계공장 지도 일군 및 모범로동자들과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1971년 10월 9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스웨리예사회민주당청년동맹대표단과 한 담화(1972년 10월 19일),” 『김일성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2년 10월 23~26일),” 『김일성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3) 신문

『로동신문』, 1967년 10월 4일; 1967년 10월 29일; 1967년 11월 1일; 1968년 2월 16일; 1970년 11월 13일; 1971년 3월 1일; 1971년 3월 4일; 1971년 3월 20일; 1971년 8월 23일; 1971년 10월 10일; 1971년 11월 16일; 1972년 3월 2일; 1972년 3월 3일; 1972년 4월 1일; 1972년 4월 10일; 1972년 4월 12일; 1972년 4월 13일; 1972년 4월 14일; 1972년 4월 17일; 1972년 4월 21일; 1972년 4월 23일; 1972년 4월 30일; 1972년 10월 24일; 1972년 11월 10일; 1972년 11월 11일; 1972년 11월 19일; 1972년 11월 24일; 1972년 12월 2일; 1972년 12월 3일; 1972년 12월 4일; 1972년 12월 8일; 1972년 12월 9일; 1972년 12월 14일; 1974년 2월 14일. 1999년 7월 2일.

『민주조선』, 2003년 7월 2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아베 게이치(安部桂司),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 차문석·박정진 옮김(서울: 도서출판 미지북스, 2009).

김유민, 『후계자론』(신문화사, 출판 연도 불명).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경완과의 대화』(서울: 도서출판 토지, 199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司),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백계문·이용빈 옮김(과주: 한울, 2012).

### 2) 논문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2021).

송정호, “김정일 권력승계 공식화 과정 연구: 1964~1986년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전현준,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통일연구원, 2009.3.).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탁용달, “대중운동을 통한 김정일 리더십 강화,” 『북한학연구』, 제6권 2호

(2010).

한승대, “북한의 정치적 의례에 관한 연구: 지도자의 기념일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Alex, Pravda, “Elections in Communist Party,” Stephen White and Daniel Nelson(eds.), *Communist Politic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Serhy, Yekelchyk, *Stalin's Citizens: Everyday Politics in the Wake of Total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A Study on Kim Jong Il's Leadership Succession Process: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ion in December 1972

Kim, Sangbum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December 12, 1972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election in the process of Kim Jong Il's succession to power. Specifically, Kim Il Sung's candidacy for the 216th constituency of the SPA proves that it was based on data released to the entire party and the masses that Kim Il Sung effectively nominated Kim Jong Il as his successor. Kim Il Sung was nominated in the electoral district 216th Huichon in the December 12, 1972 SPA election and made it clear to the entire party and the people that running in this constituency was his intention. North Korea publicized the 216th constituency as the "second Pyongyang" and the "future of Choson," and the people of the Huichon region unusually vowed allegiance to Kim Il Sung during the election process. It is believed that Kim Il Sung implicitly agreed with the campaign of political symbolization of '216' — a number associated

with Kim Jong II — which has continued since February 1968, and revealed to the entire party and the masses through his political intentions that he had effectively nominated Kim Jong II as his successor.

Keywords: Kim Jong II, leadership succession process, 216, political successor, 1972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ion.